

신진작가의 산실...유중아트센터 개관 6주년

복합문화공간 효시, 예술가들의 꿈과 재능 꽃피우는 토양 자리 잡아



정승우 이사장(왼쪽 5번째)과 고선재 위원장(왼쪽 3번째)등 참석인사들이 신진작가 전시회 테이프커팅을 하고있다.

신진작가의 산실, 예술가들의 꿈과 재능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토양을 설립목적으로 서초구에서 최초로 문을 연 '유중아트센터' (이사장 정승우)가 11월 1일 개관 6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유중아트센터가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를 통해 발굴한 유망 신진 작가에 대한 시상을 비롯해 전시회, 공연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승우 이사장을 비롯해 고선재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지역인사, 권현진 유중갤러리 관장, 쓰바키 노보루 교토조형예술대학 교수, 강애란 이화여자대학교 학장, 권영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황달성 금산갤러리 대표, 최윤정 서초미술협회 회장 등 미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승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유중아트센터는 서초구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문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척박한 환경 가운데 뿌리 내렸다"면서 "문화 창조의 바탕이 되는 미술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역발전과 아티스트들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교류문화제 등 해외아트페어를 진행하고, 교토와 서초의 문화교류를 통해 서초구가 문화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선재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유중아트센터는 복합문화공간의 효시로 예술가들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곳"이라며

"소중한 꿈이 현실이 되어 서초구는 물론 대한민국, 세계에 퍼지도록 적극 돕고 싶다"고 했다.

권영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도 축사에서 "유중아트센터는 외종조부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한 문화예술인의 산실이다.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전진하는 정승우 이사장에게 존경을 보낸다. 성과를 이루도록 함께하겠다"고 했고, 쓰바키 노보루 교토조형예술대학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예술인은 환경이 유사하다.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방배로에 위치한 유중아트센터에서는 전시회를 비롯해 공연장, 휴게공간을 갖추고 문화예술인들의 온실역할을 하고 있다.